

도이칠란드어에서 기능동사구의 본질과 유형에 대한 분석

최 승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같은 말도 성격과 정황에 따라 여러가지로 쓰이며 말투와 말솜씨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게 들린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224페이지)

현시기 외국어학습에서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정황에 따르는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골라쓰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통해서만 듣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도하는것을 명백하면서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때문이다.

현대도이칠란드어에서는 일정한 정황속에서 주어진 과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데 완전동사뿐만이 아니라 기능동사구도 리용할수 있다. 왜냐하면 기능동사구를 리용하는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동사를 리용하는것보다 더 효과적이기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도이칠란드어에서 기능동사구의 본질과 기능동사구의 유형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도이칠란드어에서 기능동사구의 본질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기능동사구란 어휘론적이며 의미론적인 특성을 가지는 기능명사와 의미론적이며 문장론적인 특성을 가지는 기능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적인 단위를 이루면서 완전동사의 어휘적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여기에서 완전동사는 혼자서 술어로 쓰일수 있는 동사를 말하며 기능동사는 문맥에서 완전동사가 가지는 어휘적인 의미를 거의 완전히 상실하여 혼자서는 술어로 될수 없는 동사를 말한다.

기능동사구는 많은 경우 완전동사나 《형용사+계사》로 대치될수 있다.

실례로 in Ordnung bringen(정리하다)은 ordnen으로, in Wut kommen(성을 내다)는 wütend werden으로 대치된다. 이것은 기능동사구의 기능명사가 동사에서 파생된 추상명사 혹은 형용사에서 파생된 추상명사라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기능동사구의 기능명사의 대부분은 동사에서 파생되어 사건을 나타내는 명사인 동작명사와 형용사에서 파생된 추상명사이다.

기능동사구에서 기능동사와 기능명사는 호상 결합되어 완전동사나 《형용사+계사》에 서처럼 동사의 행위와 과정, 상태를 표현한다. 즉 기능명사는 행위와 과정, 상태개념을 나타내며 기능동사는 기능명사에서 언급된 행위내용을 실행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명사와 기능동사가 서로 결합되면 본래의 내용이나 품사적특성을 상실하게 된다.

기능동사구를 옳게 리해하자면 그것을 구성하는 기능동사와 기능명사의 본질에 대하여 잘 아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선 기능동사구는 기능동사와 기능명사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하나의 의미적단위를 형성하면서 술어로 쓰인다.

기능동사는 기능명사가 없이는 쓰일수 없으며 반대로 기능명사도 기능동사가 없이는 쓰일수 없다. 그러므로 기능명사와 기능동사는 하나의 의미적단위를 형성한다.

기능명사는 문장성분의 특성에 따라 어휘적술어의 일부로 된다. 기능동사가 완전동사나 《형용사+계사》로 광범히 대치될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의미적단위라는것을 알수 있다.

완전동사는 기능명사와 동일한 어간을 가진다.

례: ○ *Das Theater brachte das Stück zur Aufführung.*

→ *Das Theater führte das Stück auf.*

(극장에서는 그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 *Wir geben den Mitarbeitern Nachricht.*

→ *Wir benachrichtigen die Mitarbeiter.*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준다.)

○ *Peter kam in Wut.*

→ *Peter wurde wütend.*

(피터는 분격해하였다.)

기능동사구가 완전동사나 《형용사+제사》로 대치될 때에는 의미적 차이가 있게 된다.

기능동사구내에서 기능동사는 주로 문법적기능을 수행하며 어휘적의미를 대부분 혹은 완전히 상실한다. 술어의 본래의 의미는 기능명사로 옮겨진다. 이때 기능명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추상명사이거나 형용사에서 파생된 추상명사이며 의미적측면에서 볼 때 해당 기초동사나 기초형용사와 류사하거나 일치한다.

기능동사로 쓰이는 동사의 어휘소가 다른 문맥에서는 완전동사로 쓰일수 있다. 그러나 기능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동사의 어휘소가 가지는 의미적내용은 현저히 감소되며 어휘적의미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조동사와 같은 문법적단어로 된다.

례:① *Er bringt die Kreide zur Tafel.*(완전동사)

(그는 백묵을 칠판에 가져간다.)

②: *Er bringt das Stück zur Aufführung.*(기능동사)

(그는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우의 실례①에서 **bringt**는 장소변화의 의미를 가지고있지만 실례②는 그렇지 못하다. 모든 기능동사구를 어휘화하는것은 기능동사를 문법화하는것에 대응한다.

기능동사구의 명사적성분으로서 전치사구안에 있는 전치사의 의미적내용도 현저히 감소되는데 그것은 기능동사구가 이러저러하게 어휘화되는것과 관련된다. 즉 전치사는 목적어에서와 류사한 격기능을 수행한다.

기능동사구가 어휘화된다고 하여 관용구와 같은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관용구에 대한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례: *ins Wort fallen*(말을 가로막다), *ins Gras beißen*(죽다), *zur Rede stellen*(진술을 받아내다), *unter den Nagel reißen*(훔치다), *in Abrede stellen*(부정하다), *auf Kiel legen*(배를 건조하다)

관용구는 하나의 의미적단위를 표현하거나 의미상 개별적인 구성성분의 부분적의미 혹은 완전한 의미로 분석될수 없으며 대부분 한개의 다른 어휘소로 대치될수 있다. 관용구의 의미가 전체적인것으로만 파악될수 있는 반면에 기능동사구안에 있는 기능동사는 아주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있지만 계열을 형성한다.

례: *Zum Ausdruck kommen*(표현되다), *zum Ausbruch kommen*(발생하다), *zur Ruhe kommen*(진정하다), *zum Abschluss kommen*(종결되다), *zur Anwendung kommen*(적용되다), *in Frage kommen*(문제시되다)

관용구의 의미는 전체적인것으로만 파악되며 개별적인 성분들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다. 기능동사구에서는 구성성분의 부분적의미를 파악하여 기능동사구의 전체 의미를 얻을 수 있다. 결국 기능동사구와 관용구는 하나의 의미적단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만 동일하고 다른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기능동사구의 기능동사는 비록 본래의 어휘적의미를 상실하지만 형태론적인 기능과 문장론적인 기능(인칭, 수, 태, 법), 일반의미론적인 기능은 가지고있다.

기능동사는 상태와 상태변화, 상태나 상태변화를 야기시키는 의미로 표현되는 지속적이고 변형적이며 사역적인 의미론적특성들 즉 대부분 태범주로 표현되는 아주 일반적인 종류의 의미론적기능을 가지고있다.

기능동사는 본래의 어휘적의미를 상실하고 의미적내용을 일반적인 태범주의 의미론적인 특성으로 감소시키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된다.

례: sich in Abhängigkeit befinden(종속상태에 있다) [지속]

in Abhängigkeit kommen/geraten(종속되다) [변형]

in Abhängigkeit bringen(종속시키다) [사역]

다음으로 도이칠란드어에서 기능동사구의 유형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우선 《기능동사+전치사구》형태가 있다.

례: ① Der Bundestag *bringt* diese Frage zur Entscheidung.

(연방의회는 이 문제를 결정하였다.)

또한 《기능동사+대격》형태가 있다.

례: ② Der Bundestag *trifft* eine Entscheidung über diese Frage.

(연방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기능동사+주격》형태가 있다.

례: ③ Der Umtausch *erfolgt* gegen Vorlage der Quittung.

(계산서를 제출하면 바꾸어준다.)

또한 《기능동사+여격》형태가 있다.

례: ④ Das gegenseitige Vertrauen *unterliegt* der Zusammenarbeit.

(호상신뢰는 협력의 기초이다.)

또한 《기능동사+생격》형태가 있다.

례: ⑤ Ich *bin* der Meinung/des Glaubens, dass du Unrecht hast.

(나는 너의 행동이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의 실례들에서 보여준 모든 유형의 기능동사구들이 가지고있는 공통점은 기능동사구의 기능명사와 일치하는 어간을 가지는 완전동사나 혹은 《형용사+계사》가 기능동사구를 대신하여 쓰일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을 무시하면 우에서 언급한 류형들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생긴다. 즉 실례④와 실례⑤는 몇가지 경우에만 국한되어 쓰이는데 여기서 어형변화는 불가능하며 기능동사구의 구별기준들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실례③에서는 어느 정도 어형변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류형의 기능동사구의 수는 많지 않다.

례: ○ Es herrscht/besteht Uneinigkeit.

(불일치가 존재한다.)

○ Uneinigkeit entsteht/tritt ein/bricht aus.

(불일치가 생겨났다.)

○ Er schafft/macht/ruft Uneinigkeit hervor.

(그는 불일치를 야기시킨다.)

실례③에서 명사적성분은 의미론적으로는 행동의 담당자가 아니라 사건 그자체를 표현하며 문장론적으로는 주어나 혹은 목적어이다. 결과 기능명사가 문장에서 술어나 술어부로 되는 실례①과 실례②는 기본동사구의 기본류형으로 된다.

도이칠란드어기능동사구의 본질과 류형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 옳게 활용하면 도이칠란드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완전동사로써는 달성할수 없는 표현적효과를 달성할수 있다.

우리는 도이칠란드어의 기능동사구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학생들이 폭넓은 외국어실천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